

## 동국대 佛文研 **중점연구소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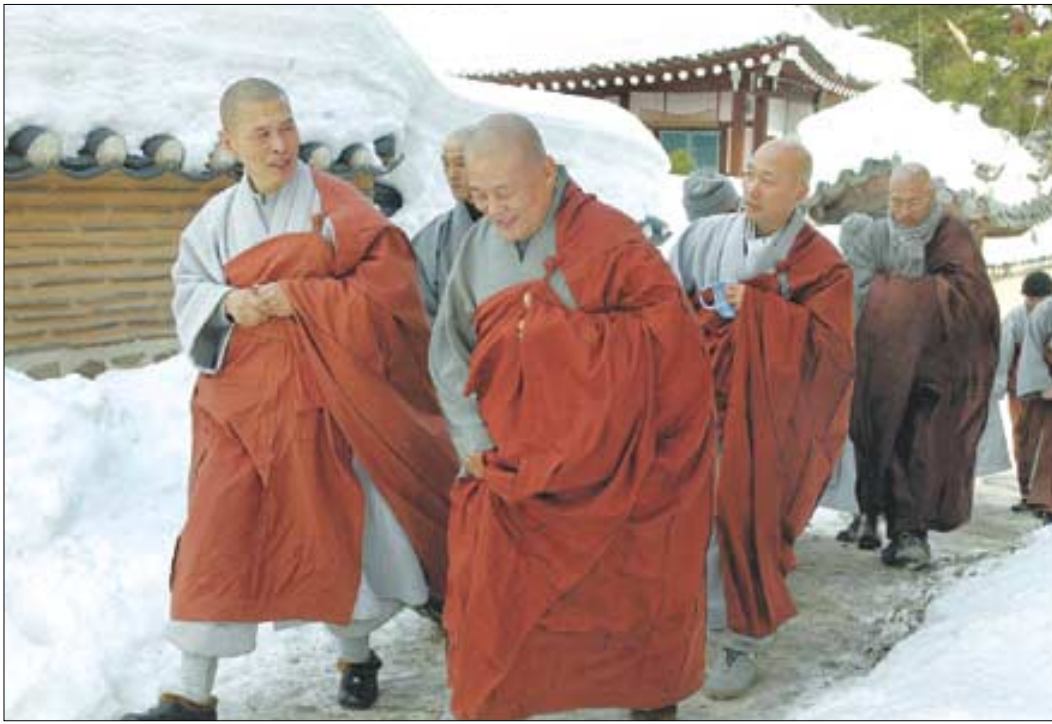
### 한국학술진흥재단, 9년간 21억 재정 지원 연구 주제 '아시아 근·현대불교문화연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하 불문연)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삼판)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지정돼, 9년간 약 21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동국대 측의 대응투자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9년간 약 40억 원이 불교문화연구원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불교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 연구소 가운데에는 불문연을 비롯해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등 6곳이 선정됐다.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연구소의 연구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해 젊은 연구자 양성 촉진 및 특성화·전문화·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불문연이 지원받게 될 연구의 주제는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 연구' 연구목적인 한·중·일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시아 근·현대 불교문화 연구'라는 주제는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선행 연구사례가 없어서 연구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불문연은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과 불교문화의 변용비교(1단계) ▲아시아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2단계) ▲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와 한국불교의 현대적 모색(3단계) 등의 주제를 설정했다. 과제 수행 기간은 각 단계별로 3년이며, 총 9년이다. 1단계 과제에는 총괄연구책임자 인 원장을 비롯해 과제책임자 김상일 교수(국문과), 정병준(사학과), 강석원 교수(일문과) 교수, 박사 취득자 9명 등 20여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제책임자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 이 연구는 학제간협동과정의 특성을 띤다. 중점연구소의 과제 수행은 '아시아 불교문화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 정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불문연은 1단계 3년차에 6개 강좌를 시험적으로 개설하고, 2단계에는 '아시아 불교문화 협동과정' 석사 과정을, 3단계에는 박사과정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간 불교학이 주로 교리나 경전에 치우친 가운데, 근대기 불교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다. 불교를 동북아시아 3국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는 더욱이 없었다. 이 점에서 불교학을 사회학적·지역학적 개념으로 확대한 아시아

불교문화학은 불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점연구소 지정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동국대 발전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국대

내 연구소 가운데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곳은 불문연이 처음으로, 불교학의 경쟁력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연구원장 박경준 교수는 "아시아불교문화학은 한중일 3국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불교를 매개로 한 협력과 화해의 가치를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지관 스님 정진수좌를 격려"**    폭설로 산중 사찰이 고립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풍안계 결제중인 선방을 찾아 대중공양을 올리고 수좌들을 격려했다. 지관 스님(사진 앞쪽 오른쪽)은 지난 12월 26일 장성 백악산 고불총림을 방문하여 "폭설과 추위에 아랑곳 않고 정진중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관 스님(문문선원 유나·앞쪽 왼쪽) 안내로 운문선원을 찾은 지관 스님은 "계속되는 폭설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장성 백악산=박재원 기자**

**폭설피해성금 1억 전달**  
 조계종 MBC에  
 조계종이 폭설 피해 복구 성금 1억 원을 MBC 문화방송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8일 최문순 사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폭설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으로나마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문순 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남동우 기자**

## 소수종교 '군중장교' 길 열리나? 윤 국방 "전향적 검토" ... 교계 "대책세워야"

국방부가 소수종교의 군중선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원불교 등 소수종교의 군 선교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천태·진각종 산하 종립대학생의 군종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군포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장은 12월 23일 정세브리핑에서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종교의 군중장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존의 군 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 종교인들도 참여해 군중장교 운용제도 개선을 검토할 '정책공동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중장교 파견을 위해 노력해온 원불교, SGI 등 소수종교단체들은 군선교를 통해 교세를 크게 넓힐 기회를 잡게 될 전망이다. **김양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군중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며 "수백 개 군부대에 흩어져 북부중단 1600여 명 원불교 신자를 위해 군중장교를 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에서는 소수종교의 군선교 참여에 대비해 군포교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불교계 군포교 관계자는 "SGI 등 소수종교가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투자해 군선교에 나선다면 군포교의 상대적인 위축도 예측된다"며 "불교계가 하루빨리 조계종 이외의 종단의 군종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군포교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교와 유사한 교상체계를 갖춘 원불교의 진출은 군포교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스타들의 나눔 ... 종교도 초월

### 불자 장동건 '생명나눔'에 5천만원 전달 기독교인 이천수 상락원 아이들과 포옹

유난히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연말, 불교계 복지기관과 단체에 유명선수·배우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12월 26일 불자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장동건씨(사진 왼쪽)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에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씨는 2001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왔으며 같은 해 5월, 각막기증 신청자로 등록했다. 또 장동건씨는 매달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며 '생명나눔'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루 뒤인 12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의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장지움)에는 2005 K리그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이천수(울산 현대·24) 선수가 찾아왔다. 이날 상락원 아동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천수 선수는 자필 사인 축구공 10개와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천수 선수는 "이곳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끝을 한번 낼 때마다 후원금을 내놓겠다"며 지속적으로 승가원과 인연을 맺어 갈 것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유난히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연말, 불교계 복지기관과 단체에 유명선수·배우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12월 26일 불자 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장동건씨(사진 왼쪽)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에 50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씨는 2001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왔으며 같은 해 5월, 각막기증 신청자로 등록했다. 또 장동건씨는 매달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며 '생명나눔'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루 뒤인 12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의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장지움)에는 2005 K리그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이천수(울산 현대·24) 선수가 찾아왔다. 이날 상락원 아동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천수 선수는 자필 사인 축구공 10개와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천수 선수는 "이곳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끝을 한번 낼 때마다 후원금을 내놓겠다"며 지속적으로 승가원과 인연을 맺어 갈 것을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터널건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천성산 계곡의 물이 마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계곡물 고갈 여부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상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공동대표 원택 등)은 12월 26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중의 하나인 13-4구구 원호터널의 사경터널 출구 근처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소남리, 주진리 일대의 계곡**

물이 완전히 말랐거나 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또 "지난 수십여 년 동안 한번도 마른 적이 없던 계곡물이 사경 공사가 진행된 후 처음

은 "계곡 근처의 사경 공사가 지하수맥을 건드려 계곡으로 흘러야 할 물이 엉뚱하게 사경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터널 공사가 잠정 중단하고 계곡물 고갈과 터

바로 사경 때문"이라며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은 천천히 진행되는데, 바로 사경의 영향이 지금에서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 역시 "도봉농소송"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곡물 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 해왔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계곡 물이 말랐다면 지금 갈수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황룡사 복원계획 올해 수립**  
 신라 황룡사 및 월정교 복원 기본 계획이 올해 내 수립돼 단계별로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재연구소는 황룡사 복원을 맡아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하려, 4월 중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유적 복원의 방법론과 제반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통문화재청은 올해 상반기 신라시대 교량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출토석재 정밀고증, 교량형태 확정 등을 통해 2007년 복원 완료코토 했다. **남동우 기자**

## 물 마르는 천성산 ... "진상 규명해야"

맞이한 갈수기에 말라버렸다"며 "계곡을 흐르는 표면뿐만 아니라 계곡 바위와 모래 틈 속까지 완전히 마른 물이 고갈됐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별공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지질학과 함세영 교수도 "지하수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韓國文化遺産 불교유적 Buddhist Relics 佛敎遺産**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East Three-storied Stone Pagoda in Suljeong-ri, Changnyeong (National Treasure No.34)  
 昌寧 遼寧里 東3層 石塔(國寶第34號) 1962년 12월 20일 지정 **8세기**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 華嚴經

창녕읍에서 천년 후 다시 법등을 밝혀니 대전법(大傳法)의 혜일(慧日)은 밝고 높구나. 환왕산 아래 동탑에서 광명이 지승이니 불일(佛日)은 영겁(永劫)토록 길이 빛나리라.

- 규격: 탑높이 5.75m
- 재료: 화강석(化崗石)
-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번지
- 명칭: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 지정: 1965년 12월 24일 해제 복원 당시 3층 돌탑탑에서 출토

"사리병"은 전국에 9개 밖에 없는 희소유물이며 담황색의 사리병은 동탑의 사리병이 유일합니다.

탑 안에 사리(骨)가 모셔져 있는 불사리 탑입니다. 천년의 아름다움을 물렸던 상지(聖地)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천년동안 무관심하고 방치함에 훼손 조상님의 숨이 맑아 없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으로 단아한 아름다움이 불국사의 석가탑에 버금가는 석탑입니다. This pagoda, which houses sarira, features graceful beauty comparable to that of Seokgatap Pagoda in Bulguksa Temple. 仏の眞身舍利を祭っている塔で、淡白な美しさが慶州仏國寺の釈迦塔に次ぐ石塔である.

**법학안내** 매일(은) 초이루(은) 18일(은) 24일

**國立中央博物館 1991 韓國 佛舍利莊嚴具 遺物目錄**

舍利具 (이승舍利의 문화재 지정번호)	時代	原所在地	發見遺物	所藏處 (이승舍利의 모)	發見場所	參考文獻
昌寧 遼寧里 東三層石塔舍利具	統一新羅	慶南 昌寧郡 昌寧邑 遼寧里	靑銅有蓋蓮形舍利瓶, 琉璃色琉璃舍利瓶, 瑠璃白舍利瓶, 靑銅小豆, 五色 구슬	지하수고 2002년 2월 19일 출토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시공개	三層塔身 方形舍利	金周榮 "昌寧 遼寧里 東三層石塔의舍利具", "考古美術" 7-5, (1966:5)

1200년 전 청동진형사리공 문화재기록 대장에 등록 (신수 17850)

**불사리탑**  
 이 자리에 오시면 시계방향으로 탑들이 합시다. 거룩하신 부처님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3번, 7번, 9번, 21번, 49번, 108번 각각 인연공력으로 자기 소원 한가지는 꼭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환몽으로 청소 탑들이 절을 하면서 탑에서 금강경 법화경 독경기도

· 당황사리병 특수촬영 사진 문화재기록 대장에 등록 (신수 17851)

2005년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죽** 문화재정 문화유산 문화재지킴 표창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무념으로 바라보며 절터 자리를 천 여년 지켜온 **국보 34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635-807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31-3 E-mail: buddha3435@yahoo.co.kr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해일 지킴이 창녕 술정리 동3층석탑 국보 제34호 동탑보호소

대한불교조계종 **仁陽寺** 주지 一禪

전화: 055)533-9921, FAX: 055)533-9903 H+P 017-586-1000

제9회 국보 제34호 동탑제 **2006년 11월 7일 오전 10시 ~ 11시**

국보 제34호 동탑제: 매년 양력 11월 7일 오전 10시 ~ 11시

· 인양사 복원불사 동참계좌 · 우체국: 610238-01-002593 인양사

**부처님 도량을 짓겠습니다**

▶ 부처님 스투파 인터넷 운영자 동아일보, KBS1 TV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리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一禪 佛日 합장 누구에게나 말없이 들려주는 석탑의 가르침

· 참석선진: 매일 3주 토요일 오전 10시 **마하안아바라밀**